

2022

2022.10.14

Newslette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 HIS Message



## General News



## Devotion



## ES News



## HIS Spotlight





##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2 Corinthians 5:17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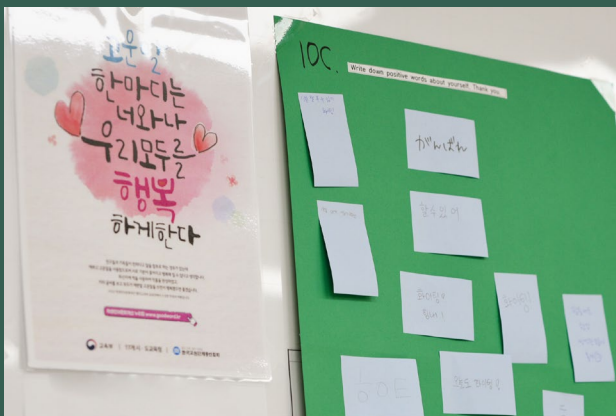
## MHS News



## Nurse's Office News



## Counselor's Office News



## Creative Corner



## Library News





# HIS Message

01



By 백하민 | 교장  
Dr. Hamin Baek · Principal

## 길 위에서 돌아보고 내다보기

### Looking Back and Forward on the Way

이번 주에 중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첫날 아침 등교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축복하며 “Enjoy the midterms!”라고 말해주었는데 아이들은 다양한 감정을 담아 저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6학년 학부모님들을 만나 함께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중학교 생활을 준비하는 대화를 하는 중입니다.

이처럼 모든 종류의 여행에는 도중에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내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기계처럼 프로그램된 공정을 아무 생각과 느낌 없이 반복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간 점검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 가졌던 분명한 비전과 뜨거운 마음이 희미해질

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ok their midterms this week. On the morning of the first day of the midterm exam period, I blesse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going to school and said, “Enjoy the midterms!” They smiled at me with various emotions^^ Also, since last Friday, I have been meeting with 6th grade parents and talking together about what their children's elementary school lives were like and how to prepare for their middle school lives.

It seems that in all kinds of journeys like these, we need time to pause on the way and to look back at the road we have walked and look forward at the road to go. Why? Perhaps it is because we are not machines that repeat programmed processes without thinking or feeling but humans.

One of the reasons we need a mid-check has to do with our fragility as human beings. When the clear vision and burning heart we had at the beginning of our journey fade,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환기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여행을 보다 풍성하게 (재)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고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오면서 보았던 풍경, 동행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보이고 경험되면서 우리의 존재가 풍성해지고 남은 여행길을 걸어갈 내적 자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2학기를 절반 정도 걸어온 이 시점에, 잠시 멈춰서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에 놓여있는 길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행에 담긴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복을 새롭게 깨닫고 경험하여, 올해의 남은 기간도 힘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we need time to pause and refresh our minds and clarify our goal. Another reason we need this time is to enrich our journey experience. When we take a moment to look back on the road we have passed, we can see and experience the scenery we saw along the way, the people who accompanied us, and the grace of God in a new way and gain internal resources with which we can finish our journey.

Now that you are halfway through the second semester, I recommend that you stop for a moment and take the time to look back on the road you have walked and look at the road ahead while enjoying the beautiful autumn scenery. By doing so, I hope, we will realize and experience anew the heart and blessings of our Heavenly Father in this journey we walk and can walk further for the rest of this year with strength.



# Devotion

02



By 오영준 | 중고등 성경 교사

Mr. Youngjoon O · MHS Bible Teacher

## 사랑의 멍에

### Yoke of Love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30세에 시작하셔서 3년 반 후,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죽음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의 왕, 주의 주로 계십니다.

A.D. 33년, 부활 후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부활의 증거를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500명 앞에 나타나신 후,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유대 지방과 주변 지역에 빠른 속도로 퍼지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왕 혹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메시아라 주장하는 예수님을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게도 방해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여기도록 명령할 때 거절하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종교가 새로 생겨날 때, 명확한 호칭은 없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교'라 칭하였고, 로마 정부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Jesus had a very short ministry life. He started His ministry on earth at the age of 30, and 3.5 years later, suffered death on the cross to atone for the sins of all mankind. Three days later, He conquered sin and death by rising again from the dead. And today, He sits on His rightful throne of God's Kingdom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In 33 A.D., shortly after rising from the dead, many Jewish leaders tried to disprove Jesus' resurrection, claiming that His disciples stole His body at night. However, after appearing before 500 people, the Gospel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gan to spread quickly and grow in popularity throughout Judea and the surrounding regions. As a result, a growing number of Jews confessed Jesus to be the Messiah (a.k.a. King or Christ).

This was bad news for the Pharisees, for they detested Jesus and had Him crucified for claiming to be the Messiah. This was also bad news for the Roman emperor because it meant that people would refuse to worship him as a god.

There was no official name for this new religion



‘길’이라 불렀습니다. ‘그 길’로부터 위협 받은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들을 고문, 체포, 감금, 처형하도록 지시했고 자신을 크리스토스 혹은 그리스도라 칭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박해의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에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피신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에 피해 머물렀습니다. A.D. 46년까지, 예루살렘 밖으로 안디옥이 ‘길’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정착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가하자, 원주민들은 그들이 예수아 크리스토스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신인)으로 여기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조롱하며 경멸하여 ‘그리스도의 자식’을 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벧전 4:16)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혈통기 위해 불린 이름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무엇이라 칭하였을까요?

제자들.

제자라는 호칭은 ‘학생’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배우는 사람인 한편, 제자는 자신의 랍비처럼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랍비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보며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가장 유능하며 밝은 사람만 랍비의 제자가 될 정도로 불가능한 업적이었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되기 전, 이 사람은 토 씨 하나

of Jesus. While the Jewish leaders called it a cult, the Roman government simply referred to the teachings of Jesus as “The Way”. Threatened by “The Way”, the Roman government began to persecute believers of Jesus. Roman soldiers were ordered to torture, arrest, imprison, and even kill any follower of Jesus who refused to bow down before the Emperor and proclaim him as cristos or Christ.

As a result of the mass persecution, the followers of Jesus fled from Judea into Asia and Europe. Many found haven in the city of Antioch located in Syria. By 46 A.D., outside of Jerusalem, Antioch would become the center for “The Way”.

With more followers of Jesus settling in Antioch, the locals began to discriminate against them and their radical devotion to the God-man they called Yeshua Cristos or Jesus Christ. To mock the followers of Jesus, the locals referred to them by a derogatory term called “Christian” meaning “little Christ.” The Apostle Peter told the followers of Jesus not to be ashamed of the term “Christian” but to embrace it and use it to bring glory to God. (1 Peter 4:16)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the term “Christian” was never taught by Jesus, but its origin began as a way to disparage followers of Jesus. So then, what did Jesus call His followers?

Disciples.

The term disciple is similar to our understanding of the word ‘student,’ but it means so much more. While a student is someone who learns from their teacher, a disciple was a person who devoted their entire life to become exactly like their rabbi. A disciple not only learned from the rabbi, but studied the life of the rabbi from the way he spoke, thought, and behaved.

In Jewish culture, becoming a disciple would have been like someone getting accepted into Harvard University on a full-ride scholarship. It was an impossible feat, and only the smartest and brightest person could become a disciple of



틀리지 않고 구약 성경을 모두 암송하여 해당 구절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랍비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원자가 어떤 랍비에게 제자가 되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거절 당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랍비의 제자가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그는 집으로 돌아가 평생 가족의 사업을 돌보며 흔히 어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랍비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자신만의 원칙이 있었고, 이는 모세오경 혹은 토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들은 ‘멍에’라고 불렸습니다. 랍비가 10,000개 이상의 규칙을 담은 멍에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누군가 랍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랍비의 멍에를 완전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랍비의 멍에를 메는 것은 제자가 ‘탈리트’라는 스카프를 매는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각 탈리트는 랍비에게 고유하여 사람들은 각자의 스카프를 통해 랍비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탈리트는 랍비의 멍에가 무겁고 어려우며 부담이 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어떤 랍비가 누군가를 보며 자신을 따를 만하다고 여겼다면, 그는 그 제자의 목에 탈리트를 둘러주며 “와서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잡혔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랍비로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제자가 되고 싶은 지 여쭙어 보십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자들이 아닌 곤고하고 약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강하고 흥왕하는 자들이 아닌, 방황하며 눈 먼 자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제자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지켜야 할 것이 매우 많은 종교로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님에 따르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분의

a rabbi. Before becoming a disciple of any rabbi, the person would need to have the entire Old Testament memorized word-for-word and be able to effortlessly recite any Bible verse on command.

A rabbi would never ask a person to become his disciple. The person would ask if he could become the rabbi's disciple. And if rejected, the person would no longer be eligible to become a disciple of another rabbi. He would then return home and spend the rest of his life helping run the family business, most likely as a fisherman.

Every rabbi had his own set of rules for interpreting God's commands, also known as the Law of Moses or the Torah. The rules of the rabbi were called yoke. It was common for a rabbi to have a yoke consisting of over 10,000 rules. If a person became a disciple of the rabbi, he had to follow his yoke perfectly.

As a symbol of bearing the rabbi's yoke, a disciple would wear a scarf known as a 'tallit.' Each tallit was unique to the rabbi. People would be able to identify whose rabbi the disciple belonged to by the tallit they wore. The tallit was a reminder that the yoke of the rabbi was heavy, difficult, and burdensome.

If a rabbi believed that the person could become exactly like him and follow his yoke, he would place a tallit over the neck of the new disciple and say, "Come, follow me.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Now that you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what a disciple is, let me explain to you why it is an amazing honor and privilege that Jesus calls us His disciple.

As a rabbi, Jesus comes to us first and asks us if we want to be His disciples. He does not seek the great and mighty, but those who are weary and weak. He does not choose the strong and successful, but those who are lost and blind. Jesus has chosen you to be His disciple because He believes that you are worthy of His love. He believes that you can become just like Him.

There is a misbelief that Christianity has many

멍에 안에 담긴 단 한 가지 규칙을 준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며 그분의 멍에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는 소망, 평안,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8-30)

우리의 랍비의 멍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 13:35)

사랑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멍에를 지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탈리트를 나의 목에 두르시며 “와서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제자의 삶에 초청하시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독교는 일련의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이며 사랑이라는 한 가지 법에 의해 규정 됩니다. 우리가 가족, 친구들, 일반인, 원수,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지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택하셨을 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28-30)

rules. According to our Rabbi, Jesus Christ, for us to become His disciple, He has only one rule in His yoke. The yoke of Jesus is easy and light, and anyone who follows His yoke finds hope, peace, and rest. (Matthew 11:28-30)

Here is the yoke of our Rabbi: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5)

It is the yoke of love.

When we wear the yoke of love, people will know that we are disciples of Jesus. When we love others, we show the world what Jesus looks like. And when we live a life of loving others, it is as if Jesus Himself is showing them His love.

Envision Jesus placing His tallit around your neck and saying, "Come, follow me.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Jesus invites you into a life of discipleship.

Remember that Christianity is not a set of rules. It is a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defined by one rule: LOVE. The way we show Jesus that we love Him is in how we love others... our family, our friends, strangers, enemies, and ourselves.

It is my genuine prayer that you may experience true joy and freedom in living the Christian life through a life of loving others. Do not strive to be a good Christian, but seek to be a disciple of Jesus who desires to show the world His amazing love.

Take heart the words of Jesus when He chose you to be His disciple: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 HIS Spotlight

03



**고상준 | Mr. Sangjoon Ko**

동문 • Alumnus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안녕하세요, 저는 HIS 2015년도 졸업생 고상준입니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작곡 전공으로  
2022년 2월에 졸업했으며, 현재 대학원 진학을 위해  
각종 대회와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ello, I'm Sangjoon Ko, a 2015 graduate of HIS. I graduated from th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February 2022 with a major  
in church music and composition, and am currently preparing for  
various competitions and concerts to enter a graduate school.

## Q. 한동글로벌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What did you like about attending HIS?

HIS의 최대 장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HIS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한국의 교육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음악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더욱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답게, 다양한 학생들을  
존중해주는 HIS만의 방식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경험한  
HIS는 학생들의 성적을 중시하기보다, 학생들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등하게 대우하는  
학교였습니다. 저는 학교의 그러한 방침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웃으며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the biggest advantage of HIS is that it provides  
students with various opportunities. During my time at HIS,  
I was able to experience various fields including music  
through a comprehensive curriculum that was not found in  
the existing Korean education system, and through those  
times, I became more confident in my favorite field.

As a school that provides various opportunities, HIS's unique  
way of respecting various students is also memorable.  
HIS, as I experienced it, was a school that understands,  
respects, and treats students equally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emphasizing  
their grades. I think I was able to smile throughout my  
high school years thanks to the school's policy.

## Q. 지금 어떤 일을 하며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What work do you do and what goal do you have?

현재 저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작곡과 관련된 여러 대회에 참여하며, 다가오는 10월에는 개인 작품 발표회와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소유한 예술적 기술인이 되고자 합니다.

Currently, I am participating in various competitions related to composition with the aim of entering a graduate school, and I am preparing for a presentation and concert of my personal work in October. Through these opportunities, I want to become an artistic technician with professional music knowledge.

## Q.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나요?

### Do you have a role model?

지금까지 제게 가장 선한 영향을 주셨던 분은 바로 HIS 서지훈 선생님이십니다. 서지훈 선생님의 지도로 제가 음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정말 많지만, 특별히 곡을 만들어 오는 과제나 합창 수업을 통해 성가곡을 이해하며, 클래식 작곡 분야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버라이어티쇼의 음악 감독을 맡는 모습을 보며, 나도 꼭 저런 분야의 리더가 되고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The person who has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me so far is Ms. Ji Hoon Suh, the music teacher at HIS. This is because I was able to choose music as my major with the help of her guidance. There are so many memorable classes, but music class was the best! I was able to understand vocal music and lay the foundations of classical music composition through assignments and chorus classes. Ms. Suh was the music director of the Variety Show and as a student, I wanted to learn how to be a professional leader like her in the future.

##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current HIS students?

HIS는 정말 귀한 곳입니다. 저도 후배님들의 고등학교 시절이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고충도 있겠지요. 특별히 대학 입학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시절의 시간들이 그립고,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님들이 각자의 미래에 투자하기에 바빠 지금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IS가 후배님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들, 경험들을 꼭 누리시길 권합니다.

HIS is such a wonderful place. I know that students' lives are sometimes not easy. Especially seniors who are facing the entrance exam might want this time to go fast. I want to say that investing a lot of time is important, but I also recommend you guys to seize the day and the time at HIS. When you graduate from HIS, you will miss the times at the school.

## Q.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눠주세요.

### Do you have any prayer requests?

1. 10월에 많은 연주회와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재정적인 부분에서 제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바쁜 일정 가운데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There are many concerts and events scheduled in October. Please pray that God be with me in all things.
2. Please pray that I can leave my financial situation to God.
3. Please pray that I don't miss reading the bible and prayers during my busy schedule.



# General News

## 교원 하계 연구 / 연수 결과 발표

Teachers' Summer Professional Development  
Result Presentation Session

## HIS 아침 기도 모임

HIS Morning Prayer Meeting

04



By 백하민 | 교장  
Dr. Hamin Baek · Principal

## 교원 하계 연구 / 연수 결과 발표

### Teachers' Summer Professional Development Result Presentation Session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때마다 다양한 연수에 참가하시거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지난 여름 방학 중에도 선생님들은 프로젝트 수업, 행복한 교실 만들기, 일에 대한 성경적 원리, 과정 중심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Visual Thinking, 교육과정 연구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9월 26일(월)에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며 서로에게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HIS teachers develop their competency as teachers by participating in various training sessions or through personal research during each vacation. (The school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eachers for this purpose.) During last summer vacation, they studied on various topics such as project classes, creating happy classrooms, biblical principles of work, process-based assessment, tips for writing school life records, visual thinking, and curriculum research. On September 26<sup>th</sup> they had a valuable time to share the results with the other teachers and learn from one another.



# HIS 아침 기도 모임

## HIS Morning Prayer Meeting

By 백하민 | 교장

Dr. Hamin Baek · Principal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Mt. 6:33)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 12:2)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Jer. 33:3)

이번 학기부터 학교 일과를 시작하기 전인 오전 7시  
30분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채플실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rom this semester, at 7:30 am before school begins,  
faculty/staff members and students voluntarily gather in  
the chapel room to worship and pray to God. We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so that it will be a precious  
time for us to seek and experience God's kingdom and  
righteousness in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 ES News

**별빛 독서 축제**

Reading Under the Stars

**시화 대회**

Poem Drawing Contest

05



By 박에스더 | 초등 디렉터  
Ms. Esther Park · ES Director

## 별빛 독서 축제

Reading Under the Stars



아름다운 가을 밤, 초등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책에서 본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으로 분장하여 별빛독서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공주님들, 각종 동물들, 해리 포터 등장인물들, 그 외에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돋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캠핑 텐트 안에서 다양한 장르의 책 내용을 듣고, 공예 활동과 보드 게임을 즐기며 경품 부스에서 선물들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On a beautiful autumn night, elementary students gathered at HIS court, dressed up in all kinds of book characters and pajamas for Reading Under the Stars. We met many princesses, all kinds of animals, several characters from Harry Potter, and many beloved characters. Students listened to stories from various genres of books inside camping tents, did crafts, and played board games. Also they were able to get items from the prize booth.





By 김영선, 조하나 | 초등 국어/사회 교사

Ms. Yung Sun Kim, Ms. Hana Jo · ES Korean LA/SS Teachers

## 시화 대회

### Poem Drawing Contest



한글날 576돌 기념 교내 시화대회가 10월 4일~5일에 각 학년 국어, 사회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화대회 주제는 하나님, 우리 나라, 우리 학교, 가을, 한글, 보물, 꽃, 추석, 감사였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느낌을 살려 시를 쓰고 자기가 지은 시의 내용에 어울리게 그림을 그리고 꾸미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오고 최선을 다해 시화를 완성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열정을 다해 집중하는 태도가 참으로 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마음과 재능이 담긴 감동적인 시화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로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하며 시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며 풍성한 가을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On October 4<sup>th</sup> and 5<sup>th</sup>, ES students celebrated the 576<sup>th</sup> Hangul Day by participating in the Poetry Drawing Contest. The topics were God, Our Country(Korea), Our School, Autumn, Hangul, Treasure, Flowers, Chuseok, and Thanksgiving. After writing a poem about the topic they chose, they each drew an illustration to express their feeling and decorated it with color pens. We were proud of the fact that they did their best and presented beautiful artwork. The results were stunning, showing their sincerity and talents. We pray that students learn the beauty of poetry by appreciating others' works and rejoice in the abundant season of autumn.

\*학생들의 작품은 Creative Corner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p.36)

\*See students' artworks in Creative Corner. (p.36)



# MHS News

YOUR REASON?



**스피치 대회**

English Speech Competition

**동아리 활동**

Club Activities

**10학년 한글날 프로젝트**

10<sup>th</sup> Grade Hangul Day Project

06

# 스피치 대회

## English Speech Competition

By 한승훈 | 12A 담임교사

Mr. Seung Hoon Han • 12A Homeroom Teacher



<https://bit.ly/3yHdUhH>

2022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영어 스피치 대회가 각각 지난 9월 21일과 10월 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상황 중에도 영어 스피치 대회를 진행했지만 올해처럼 채플에서 전교생이 함께 지켜보게 된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기쁨을 하나하나 되찾게 되어서 기쁩니다. 중학교 스피치 대회는 유튜브 방송이 되지 못했지만 녹화된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스피치는 유튜브로 송출되었고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We had this year's English Speech Competitions on Sep. 21(for MS) and Oct. 5(for HS). We had English speech contests in 2020 and 2021 even during the peak of COVID-19, but it was our first time in three years that we could have all the students present at the chapel to enjoy the speeches. It was such a joy to get that simple daily joy back that we took for granted for so long. MS speeches unluckily were not live-streamed but we do have the videos of the speeches, so if you want to watch them again, contact the school(Ms. In-Ok Kwak). For HS, the speeches were live-streamed and if you'd like to watch them again, follow the link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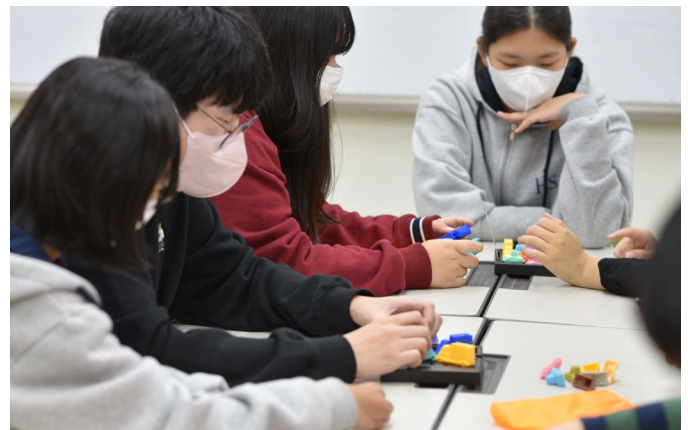


## 동아리 활동

### Club Activities

By 백예지 | 중고등 동아리 담당교사

Ms. Yeji Baek · MHS Teacher in Charge of Clubs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적성, 능력, 진로 등에 따라 독서, 토론, 역사, 수학, 과학, 방송, 드라마, 미디어, 코딩, 비즈니스, 상담, 음악, 미술, 스포츠 등의 다양한 동아리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고 빛내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아 나가는 학생들이 기뻐하고 대견스럽습니다.

We provide various clubs such as reading, debate, history, math, science, broadcasting, drama, media, programming, business, counseling, music, art, sports, etc. according to students' aptitude, abilities, career interests, etc. and run them to help students discover and shine their talents and aptitudes. We are grateful to see our students developing their abilities not for themselves alone but for God's glory.







<https://bit.ly/3VjLdRA>

## 10학년 한글날 프로젝트

### 10<sup>th</sup> Grade Hangul Day Project

By 오민혜 | 중고등 국어 교사

Ms. Min Hye Oh · MHS Korean Teacher



10학년 학생들은 '세종어제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를 통해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가장 첫 모양새와 소리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대해 고민하며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창의성과 통찰력으로 만든 작품을 격려와 사랑의 눈으로 감상하여 주세요.

10<sup>th</sup> grade students learned why and for what purpose 'Hangul' was created, through 'Hunmin Jeongeum Manuscript by King Sejong' and 'Yongbieoecheonga(Song of Dragons Flying in Heaven)'. Also, they learned the first shape and sound of Hangul made by King Sejong. They thought more deeply about Hangul which we take for granted in our everyday lives and made typography works with the creativity and insight God gave each of them. Please click the link above and appreciate their works with the eyes of encouragement and love.



# Counselor's Office News

##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활동

Student Language Culture Improvement Education Week

## 또래상담동아리 활동

Peer Counseling Activity

-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peer counsel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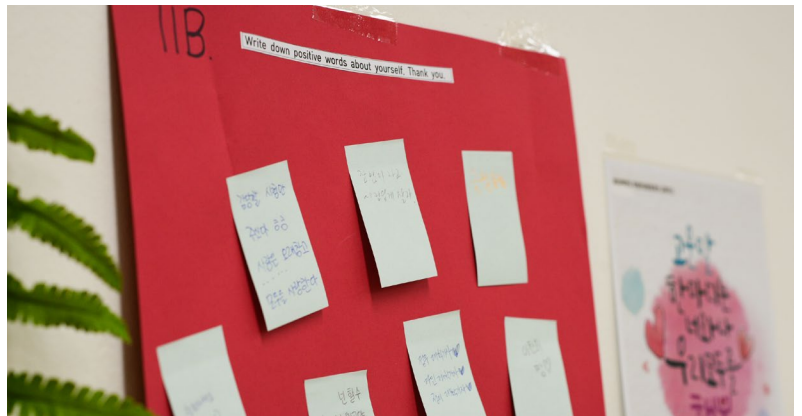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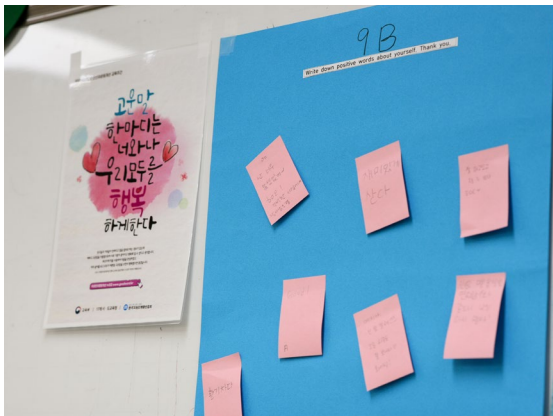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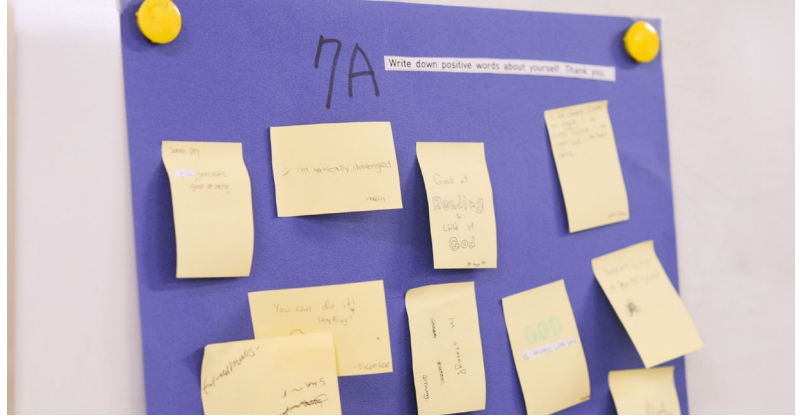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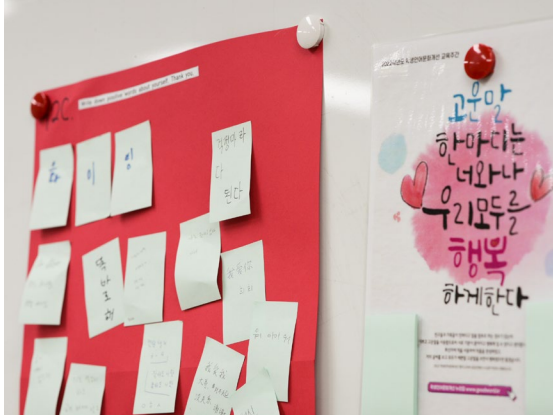
07

By 장정은 | 상담 교사

Ms. JungEun Jang · School Counselor

##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

### Student Language Culture Improvement Education Week



**일자** 2022년 10월 4일 - 28일

**대상** 전교생

#### 내용

- ① 10월 첫째, 둘째 주
  -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 게시판에 붙이기
- ② 10월 셋째, 넷째 주
  -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 게시판에 붙이기
- ③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3번 이상 사용하기
- ④ 한 달 동안 긍정적인 언어를 매일 사용했을 때의 작은 변화에 대해 글로 적어 보기

**Date** October 4<sup>th</sup> - 28<sup>th</sup>, 2022

**For** All students

#### Content

- ① 1<sup>st</sup> and 2<sup>nd</sup> weeks of October
  - Write positive words for yourself on the post-it and post it on the bulletin board.
- ② 3<sup>rd</sup> and 4<sup>th</sup> weeks of October
  - Write positive words for others on the post-it and post it on the bulletin board.
- ③ Use positive words more than 3 times at school and home.
- ④ Write about small changes in daily use of positive words during the month.



## 또래상담동아리 활동 - 또래상담자와 함께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Peer Counseling Activity -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peer counselors



**일자** 2022년 10월 17일 - 28일

**대상** 친구들과 원활한 소통을 원하는 학생들

**장소** 상담실 (MH 102)

### 내용

- ① 주리더자 : 학교 상담사  
부리더자 : 또래상담자
- ② 집단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기
- ③ 집단상담을 통해 각자의 대인관계적인 감정과 반응 양식을 탐색해 보기
- ④ 수용, 격려, 지지를 경험하고 자신과 타인을 인정하는 연습해 보기

**Date** October 17<sup>th</sup> - 28<sup>th</sup>, 2022

**For** Students who want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ir friends

**Venue** Counselor's Office (MH 102)

### Content

- ① Leader : School counselor  
Assistant leader : Peer counselor
- ② Find out what it takes to create a trustworthy atmosphere within the group.
- ③ Explore each one's interpersonal emotions and response pattern through group counseling.
- ④ Experience acceptance, encouragement, support, and practice accepting oneself and others.

# Library News

## ‘내가 만든 환경 동화책’ 소개

Introducing ‘My Children’s Book for the Environment’

## 기증 도서 소개

Introducing Donated Books

## 도서부 (코코보코) 별빛독서축제 자원 봉사

Book Club (Cocoboco) Students’ Voluntary Service for  
*Reading Under the Stars*

## 제 20회 포항대학교 평보 백일장

20<sup>th</sup> Pohang University ‘Pyeongbo’ Writing Contest

08



By 이희정 | 사서

Ms. Hee Jung Lee · Librarian

## ‘내가 만든 환경 동화책’ 소개

### Introducing ‘My Children’s Book for the Environment’



어릴 적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 감수성, 행동도 마찬가지일테지요. 기후 위기 시대라 불리는 요즘, 반갑게도 갈수록 많은 선생님들이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김나라 KSL 선생님은 중학교 KSL학생들과 함께 환경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며 ‘샴푸 안 쓰기,’ ‘냉장고 문 닫기’ 등의 미션으로 생활 속 환경보호 아이디어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학교 학생 7명이 직접 그리고 쓴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 동화책’이 도서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체험하고 만든 환경 동화책을 통해 지구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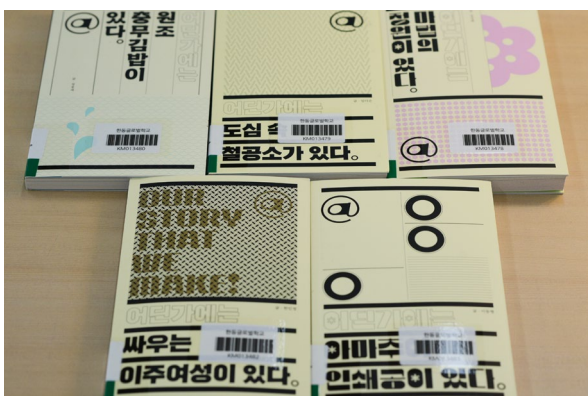
They say what'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People's thoughts, values, sensitivity, and behaviors about environments are, too. These days, often called the era of climate crisis, more and more teachers are starting to take an interest in environmental education. During September, Ms. Nara Kim (KSL Teacher) and MS KSL students had classes on environment and carried out such missions as ‘not using shampoo’ and ‘closing the door of the refrigerator’ that could help students practice preserving the environment in their everyday lives. It was a meaningful time when they could learn that our small habits could help save the earth God created. Middle school students also made their own ‘**Books on the Environment for Elementary Students**,’ which are currently displayed at the library. We hope that students were able to learn and share their thoughts on protecting our environment through this project.

## 기증 도서 소개

### Introducing Donated Books

#### 01 봄날 책방

#### Spring Day Bookstore



매년 우리학교에 새로 만든 책을 보내주는 로컬 책방이 있습니다. 올해도 잊지 않고 5권의 책을 보내 주셨는데요. 원조 충무김밥 이야기, 마법의 정원이야기, 철공소 이야기, 이주여성 이야기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지역의 풍경들이 담겨있습니다. 로컬리티는 로컬에 사는 사람들이 장소와 행위를 통하여 형성하는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이 책들을 통해 자신이 사는 곳을 넘어 이웃 지역이 전해오는 색다른 풍경과 이야기들을 만나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겠지요.

Our school annually receives new books from a local bookstore. This year, they have sent 5 books. The books include small but meaningful stories of the original Chungmu-style gimbap, a magical garden, ironworks, migrant women, etc. that portray beautiful views of local sites. Locality refers to the experiences that people form within local sites through certain places and actions. These books will be a friendly guide for you to meet neighboring sites with different scenery and stories.

## 02 꿈꾸는 우리역사 그림책 시리즈 - 대구편 Our Dreaming History Drawing Books Series - Daegu



꿈꾸는 우리역사 그림책 시리즈는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아이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주변에 숨 쉬고 있는 유적지들을 소개하여 그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만든 책인데요. 흥미로운 제목의 『모명재』, 『수성못』, 『나야대령』 등 대구 지역의 위인과 장소를 그림과 이야기로 만나보고, 부록에 실린 다른 명당 소개와 정유재란 등 주제와 연결된 간략한 지식 정보까지 실린 알찬 책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고 유적지를 방문하면 듣고 보고 느끼는 멋진 역사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 외에도, 6학년 박청 학생의 부모님께서 꾸준히 영어 동화책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9월에도 성경 동화를 비롯한 100여 권의 재미있는 영어 동화책을 직접 챙겨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보내주신 책 일부는 해외 난민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을 통해 그 나라 아이들과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귀한 나눔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Our Dreaming History Drawing Book Series were made to help children develop historical imagination and gain cultural confidence by introducing historical sites near us and telling the stories behind them. The books have interesting names such as “Cultural Heritage : Momyeong,” “Soosung Pond,” and “Colonel Unni Naya,” inviting readers to meet the heroes and various sites of Daegu through drawings and stories. The appendix includes famous sites within related topics such as Jungyoo Jaeran etc. that give concise information.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students to feel the historical sites more lively if they take a history trip with parents after reading the books.

\*Also, the parents of Joy Park(G6) have been regularly donating English children's books to our library. During September, they sent us more than 100 English story books, including Bible story books, for children. After talking with Joy's parents, we passed some of them to children in a foreign country through a student's parents serving at a refugee school there. Hopefully, this thoughtful contribution will serve as a light that reveals our Lord's glory.



## 도서부 (코코보코) 별빛독서축제 자원 봉사

Book Club (Cocoboco) Students' Voluntary Service for *Reading Under the Stars*



Last September 30<sup>th</sup>, 9 students of the Book Club (cocoboco) volunteered in Reading Under the Stars, the elementary school event. They helped out by reading books to younger students, making glow-in-the-dark bracelets, and taking interviews. It was an exciting night for elementary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our friendly middle school students joining the event. Our students were like twinkling stars shining brightly in the sky. Please check this out by clicking the link below.



지난 9월 30일 초등 별빛독서축제 행사에서 우리학교 도서부 (코코보코) 9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린 동생들 책 읽어 주기, 야광 팔찌 만들기, 인터뷰하기 등의 활동을 했는데요. 학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선생님과 초등 학생들이 함께 한 축제에서 도서부 언니 오빠들이 보여준 사랑 덕분에 더욱 신나는 축제의 밤이었답니다. 하늘의 별빛보다 더욱 총총 빛나는 우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봅니다. 링크를 통해 영상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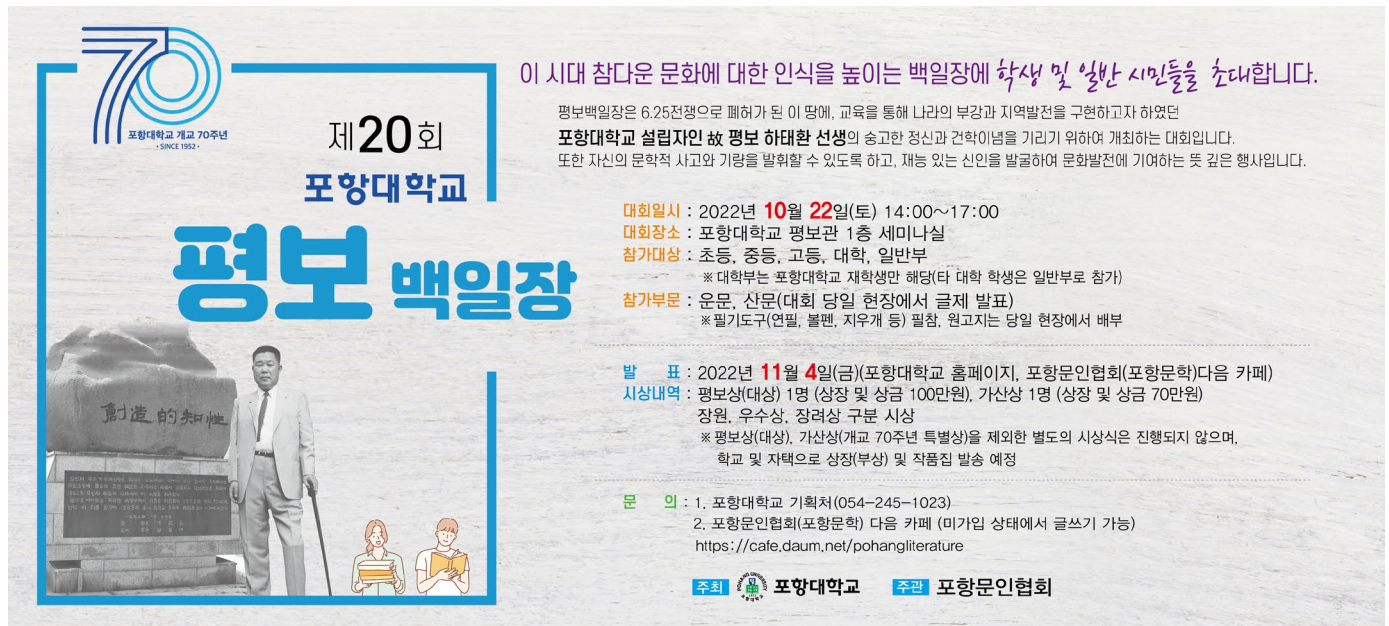


<https://bit.ly/3rRZgQU>



# 제 20회 포항대학교 평보 백일장

## 20<sup>th</sup> Pohang University 'Pyeongbo' Writing Contest




이 시대 참다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백일장에 **학생 및 일반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평보백일장은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교육을 통해 나라의 부강과 지역발전을 구현하고자 하였던  
**포항대학교 설립자인故 평보 하태환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건학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또한 자신의 문학적 사고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대회일시** : 2022년 10월 22일(토) 14:00~17:00  
**대회장소** : 포항대학교 평보관 1층 세미나실  
**참가대상** :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  
 ※ 대학부는 포항대학교 재학생만 해당(타 대학 학생은 일반부로 참가)  
**참가부문** : 운문, 산문(대회 당일 현장에서 글제 발표)  
 ※ 필기도구(연필, 볼펜, 지우개 등) 필참, 원고지는 당일 현장에서 배부

**발 표** : 2022년 11월 4일(금)(포항대학교 홈페이지, 포항문인협회(포항문학)다음 카페)  
**시상내역** : 평보상(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가산상 1명 (상장 및 상금 70만원)  
 장원, 우수상, 장려상 구분 시상  
 ※ 평보상(대상), 가산상(개교 70주년 특별상)을 제외한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으며,  
 학교 및 자택으로 상장(부상) 및 작품집 발송 예정

**문 의** : 1. 포항대학교 기획처(054-245-1023)  
 2. 포항문인협회(포항문학) 다음 카페 (미가입 상태에서 글쓰기 가능)  
<https://cafe.daum.net/pohangliterature>

**주최**  **포항대학교** **주관** **포항문인협회**

An invitation to students and citizens to raise awareness of a genuine culture through writing.

The Pyeongbo Writing Contest was established by Pyeongbo, Mr. Taehwan Ha, the founder of Pohang University, who sought the prospe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rough education. It is held to continue this purpose and encourage participants to express their literary abilities, while finding rookies who will contribute to cultural development.

**Date** : Oct 22th(Sat), 2022 14:00~17:00

**Venue** : Pohang University Pyeongbo Hall 1F Seminar Room

**Applicants** :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University students, Adults

\*Pohang University students, other university students categorized as adults

**Category** : Poetry, prose (Topic announced at the contest)

\*Bring your own writing supplies(pencil, pen, eraser, etc.). Manuscript paper will be handed out at the contest.

**Results** : November 4th(Friday)(Pohang University homepage)

**Awards** : 1 Pyeongbo Award(Grand prize, KRW 100 million worth), 1 Additional (Award, prize KRW 70 million worth), Manor, Excellence, Encouragement (distinctive)

\*Only the grand prize and additional prize will be awarded at the ceremony and other prizes will be sent to school/household.

To inquire more:

Pohang University Planning Department (054-245-1023)

Pohang Literary Society(Pohang Literary) Daum Cafe (You may post without logging in)

<https://cafe.daum.net/pohangliterature>

우리 도서관에서는 매일 실시간 구글 시트를 통해 **희망도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 학생생활 > 도서관에 링크가 공유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In our library, we are receiving **Book Requests** by Google Sheets every day.

The link is shared on the School website > Student Life > Library.

We ask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https://bit.ly/3faMPfO>



# Nurse's Office News



**코로나19와 독감 예방법**  
COVID-19 and Flu Prevention

09

By 이지원 | 보건 교사

Ms. Jiwon Lee · School Nurse

## 코로나19와 독감 예방법

### COVID-19 and Flu Prevention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지난 2년간 마스크 의무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 계절성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같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면역력이 감소하여 평년보다 큰 인플루엔자 유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2022년 겨울시즌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트윈데믹을 겪고 있어, 우리나라도 빠르면 11월이나 12월에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와 근접한 뉴질랜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유지로 작은 인플루엔자 계절성 유행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 실내 마스크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발생률을 약 50%까지 감소시키며, 특히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를 경험하지 않은 5세 미만의 소아 접종은 다른 어느 해보다 중요합니다.

※ 강제 사항은 아니며 본인과 보호자가 모두 희망하는 경우 접종하시면 됩니다.

※ 모든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접종 하시기를 바랍니다.

#### ② 실내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이번 겨울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같이 겪어내야 하므로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합니다.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in January 2020, due to mandatory mask wearing, seasonal influenza epidemic has not been an issue in our country. However, after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irus, social distancing was alleviated which made the influenza epidemic more likely to recur.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influenza epidemic will be at higher stake than the average year with the decrease of immunity.

In fact, Australia has been going through COVID-19 twindemic during the winter of 2022, which shows the possibility of a peak in November or December this year in our country. On the other hand, it is predicted that Korea will likewise be influenced not too seriously considering that New Zealand, which is close to Australia, is proceeding with mandatory masks measures indoors and having a small impact of the influenza epidemic.

Then how should we prevent the influenza epidemic predicted during 2022~2023?

#### ① Influenza vaccines are recommended.

Vaccines decrease the rate of the possibility of getting infected by the influenza to 50%. Especially children under the age of 5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influenza since birth during the last 2 years are recommended to get vaccinated.

※ It is not mandatory and should be taken by the consent of both parents(guardian) and student.

※ All vaccines may have side effects, so please decide after receiving medical consultation.

#### ② Wear masks indoors.

Because we will likely go through the influenza along with COVID-19 this coming winter, please wear your masks indoors and also outside if you have respiratory symptoms.



#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Indoors' Masks Mandatory!!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만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  
Students under 14 who are not imposed of a fine must also wear masks



##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Wearing Masks Outdoors

### ※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3.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 Wearing Masks Outdoors Required :

1.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fever, coughing, sore throat, etc.)
2. COVID-19 **High-risk group** or if you had **contact with high-risk group**  
\*High-risk group: Elders, decreased immunity, chronic respiratory diseases, has not been vaccinated etc.
3. Shouting, singing, speaking etc. in enclosed places **with increased droplet produce**  
\*The more people and possibility of droplet produce, the more need for wearing masks



## 마스크 의무착용 제외 대상 | Exceptions for Mandatory Ma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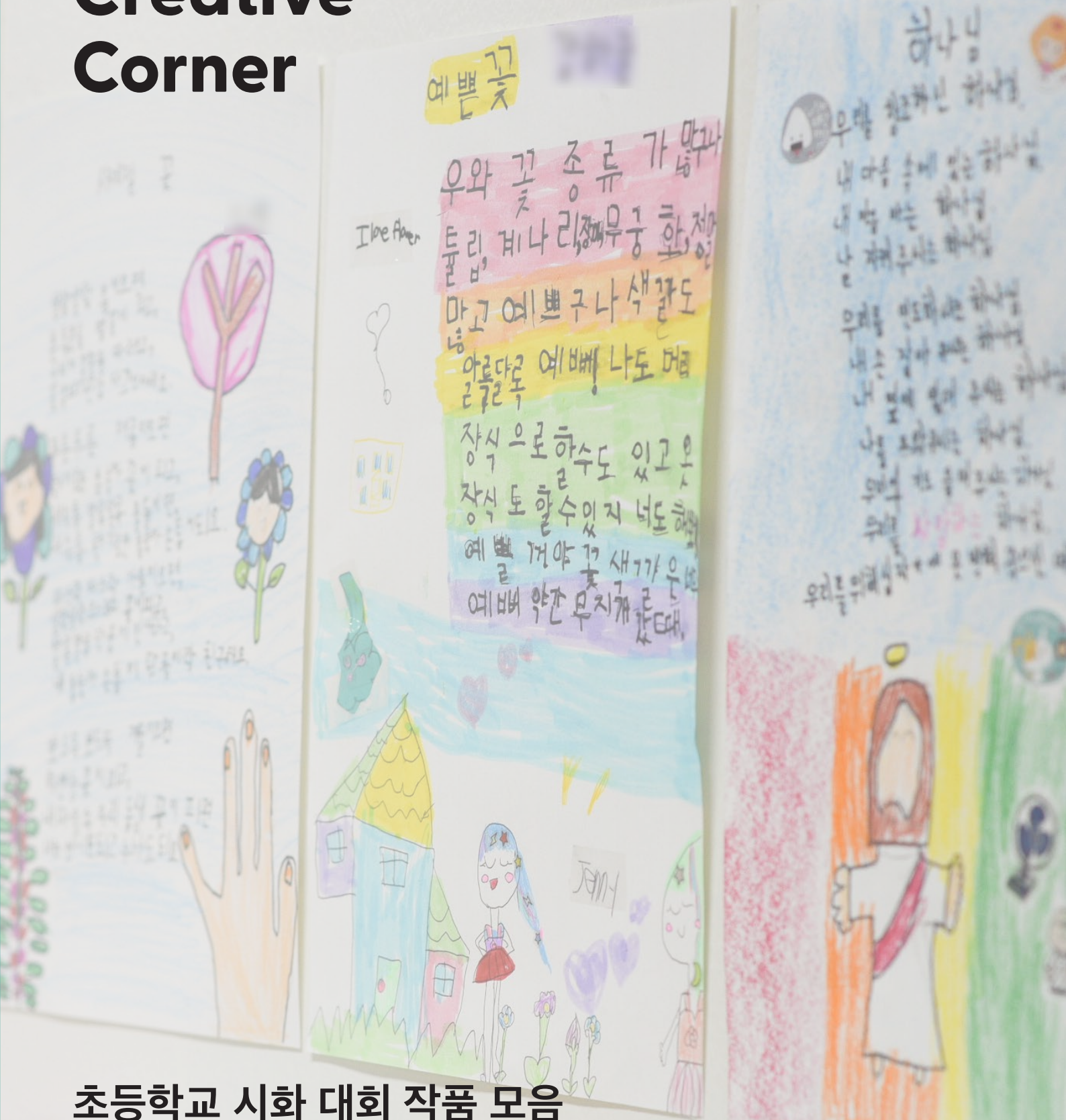
1.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2.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1. Brain lesion, disabled, etc. One who has difficulties on wearing masks or taking them off
2. One who received a diagnosis that he/she has difficulties wearing a mask due to respiratory symptoms

\* Diagnosis(including physical condition etc.) must clearly state that one  
'**has difficulties wearing a mask**'

# Creative Corner



초등학교 시화 대회 작품 모음

ES Poem Drawing Artworks

중고등학교 미술 작품 모음

MHS Artworks

10



By 조하나 | 초등 국어 교사  
Ms. Hana Jo · ES Korean Tea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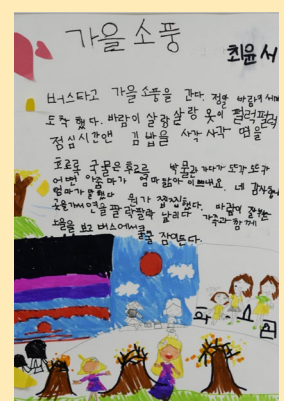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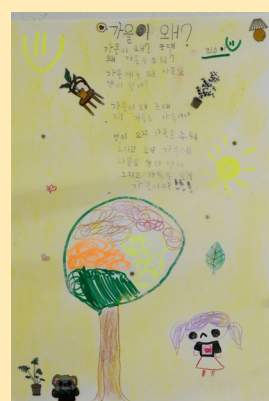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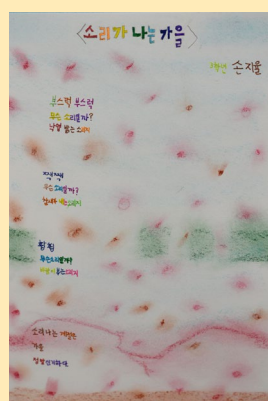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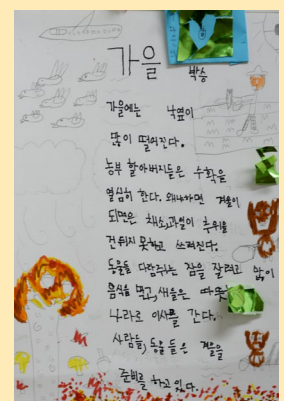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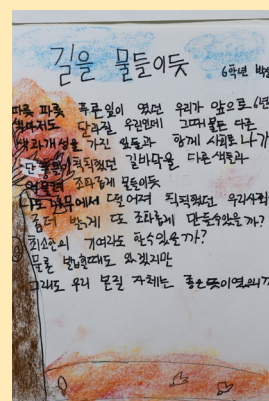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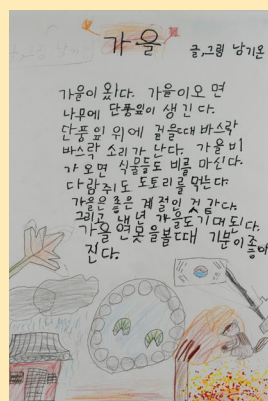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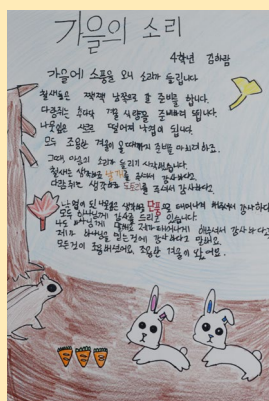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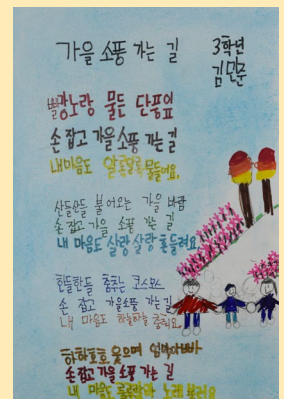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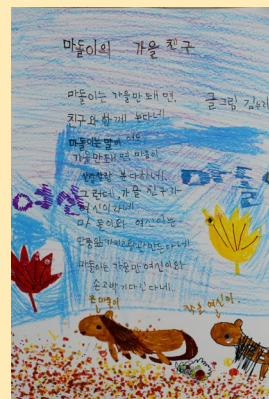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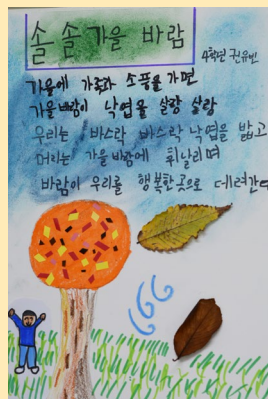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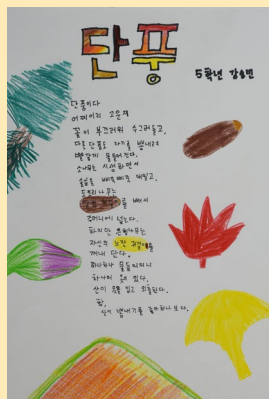
## 초등학교 시화 대회 작품 모음

### ES Poem Drawing Ar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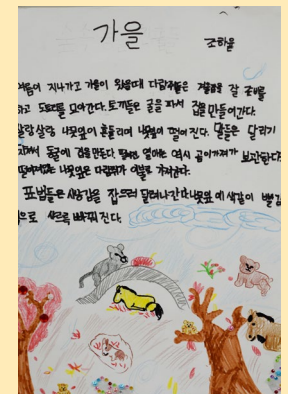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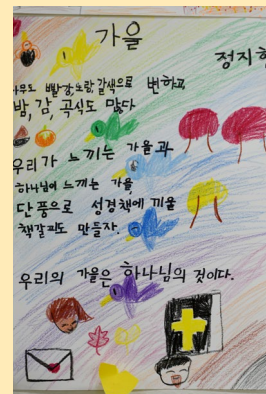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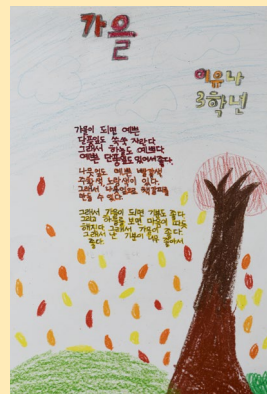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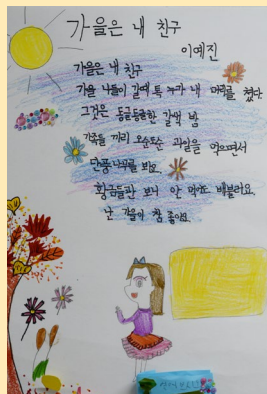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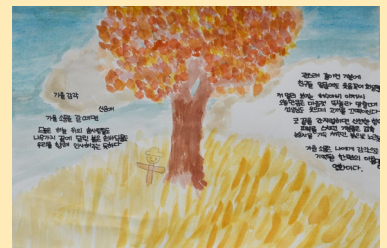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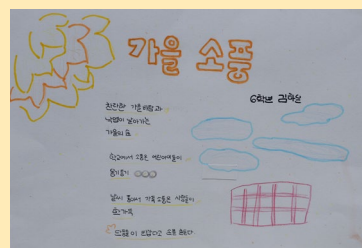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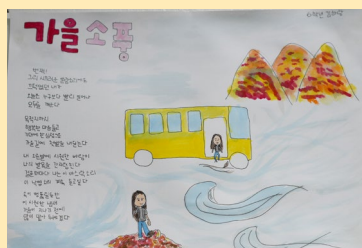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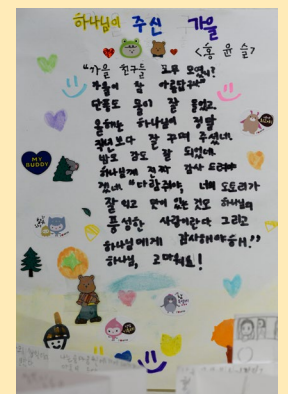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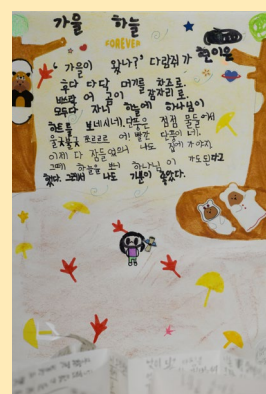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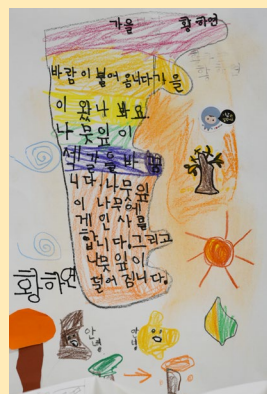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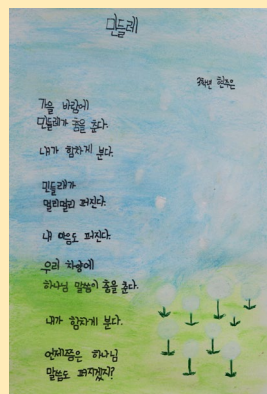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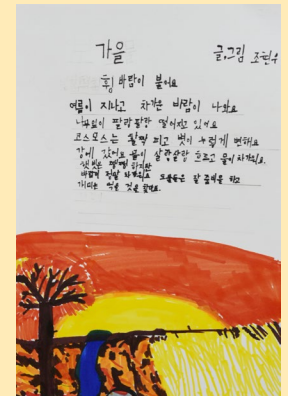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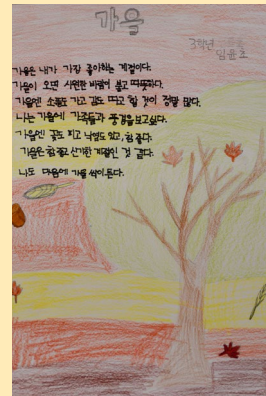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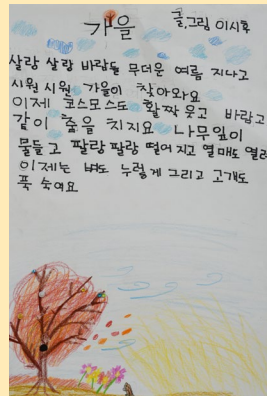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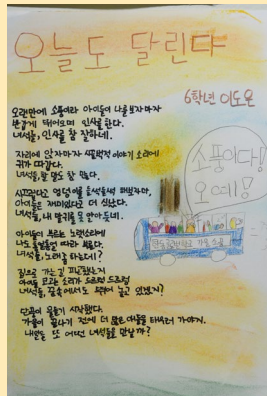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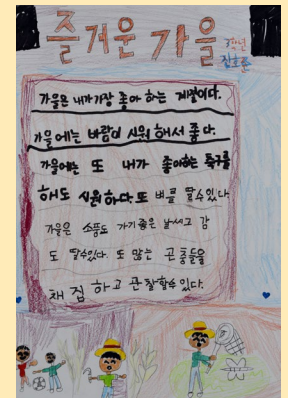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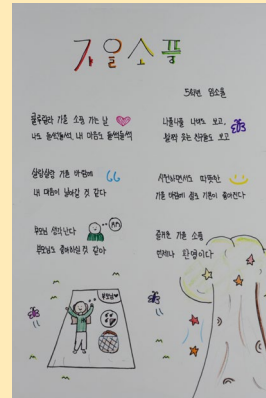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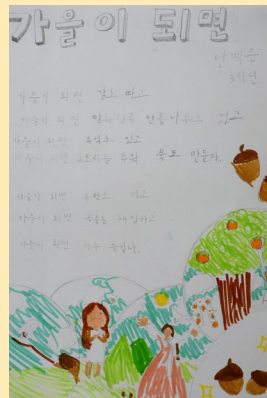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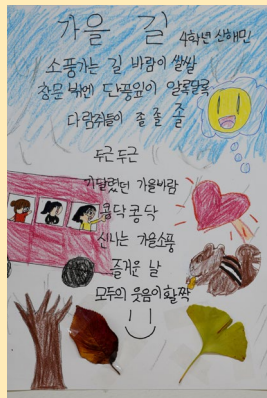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시화 대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학교, 가을 소풍, 감사, 꽃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이 잘 드러난 시를 짓고, 시에 어울리는 그림으로 다채롭게 표현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께 감사하고, 학교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Through the Poem Drawing Contest, ES Students wrote poems on such topics as God, our school, fall field trip, thanksgiving, and flowers and then drew colorfully along with the poems. We could feel our hearts moved as we found our students' gratitude to God, their parents and teachers and care and love for the school and the surrounding nature in their artworks.

가을  
F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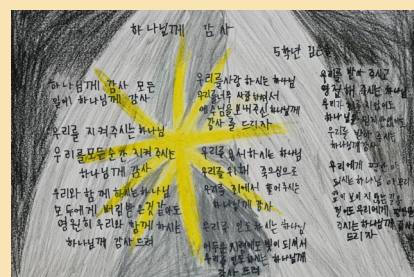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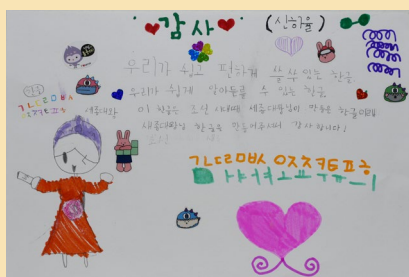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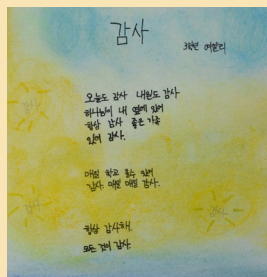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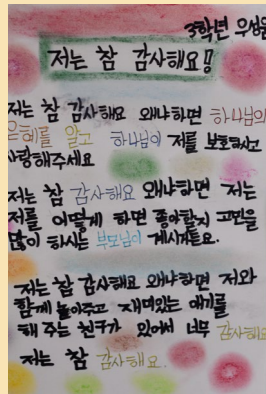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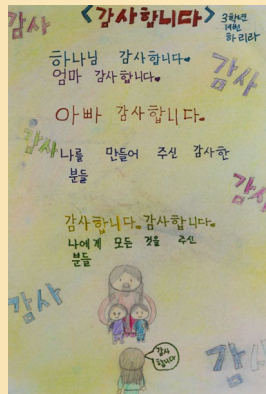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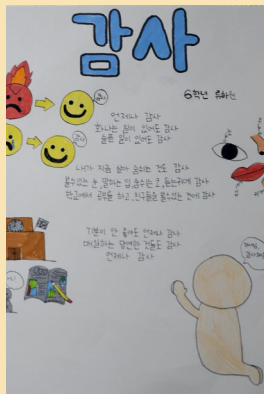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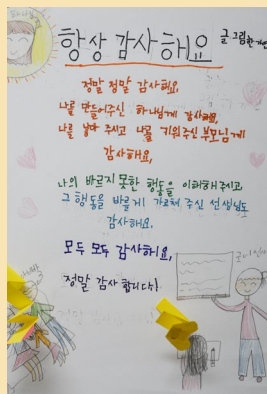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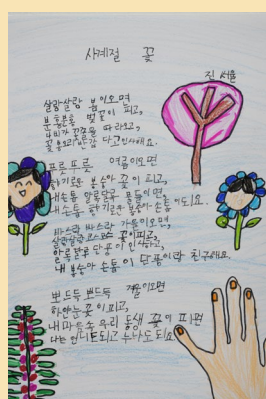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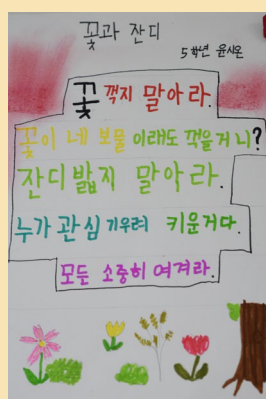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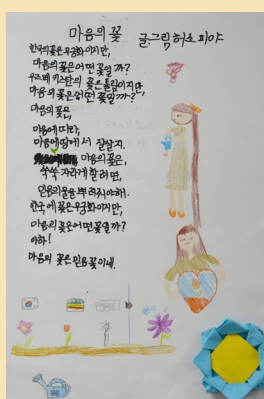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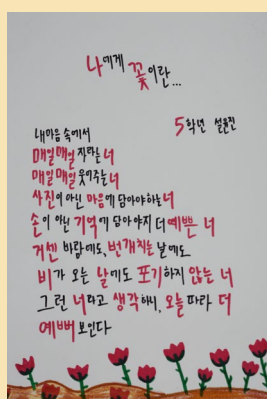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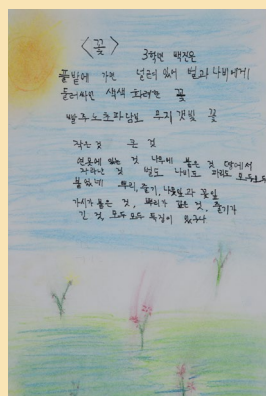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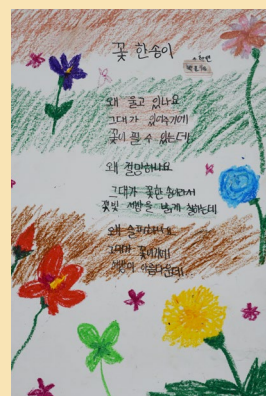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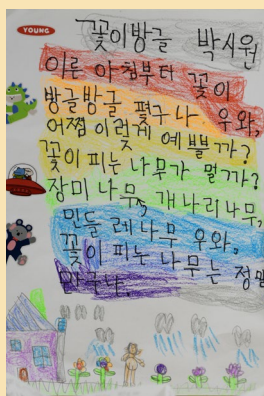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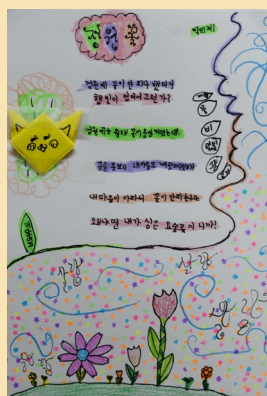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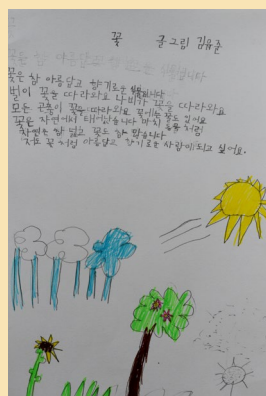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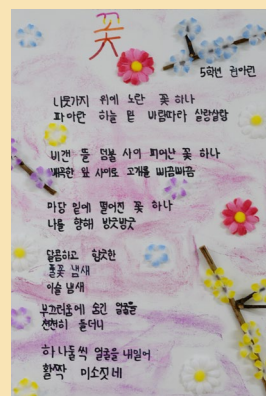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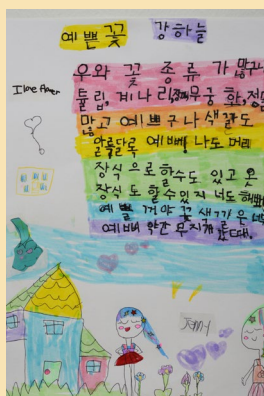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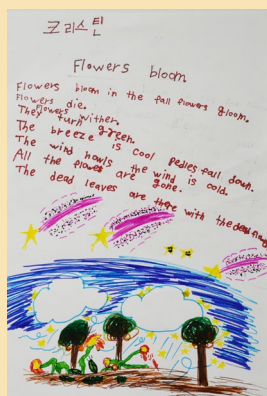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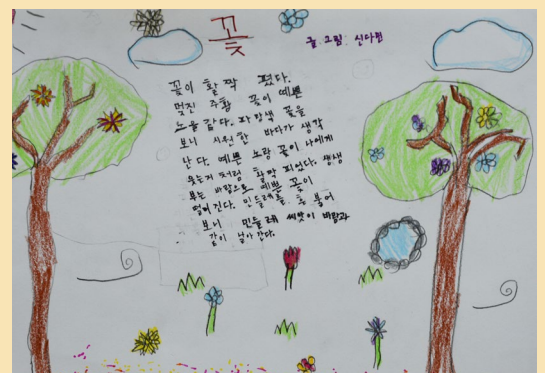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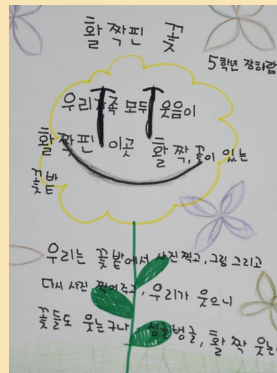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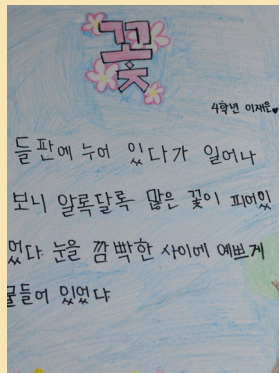
감사  
Thanksg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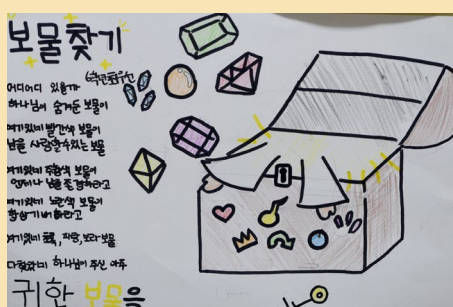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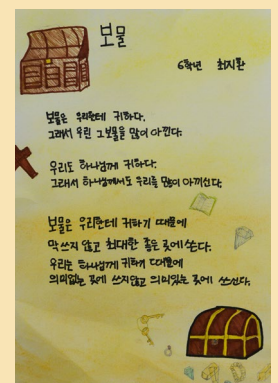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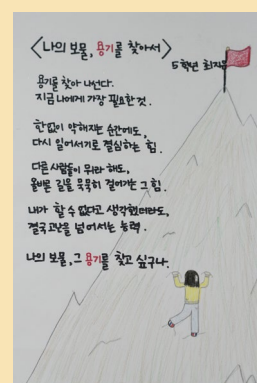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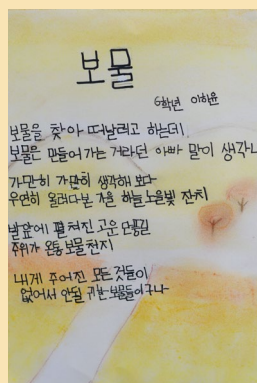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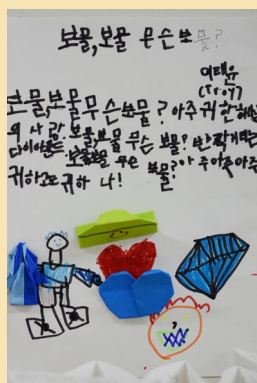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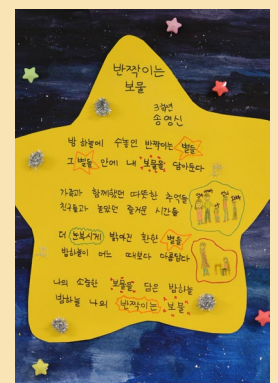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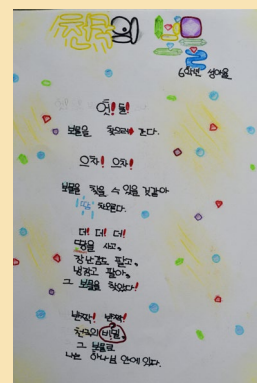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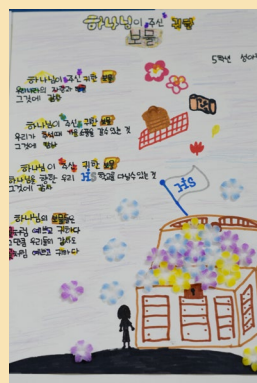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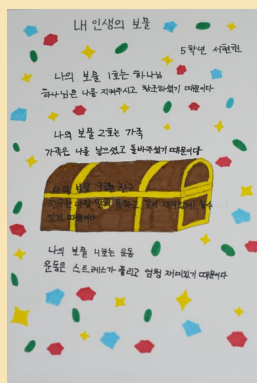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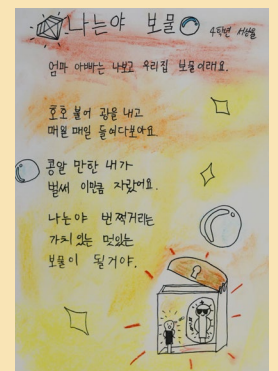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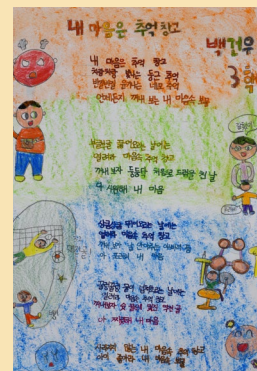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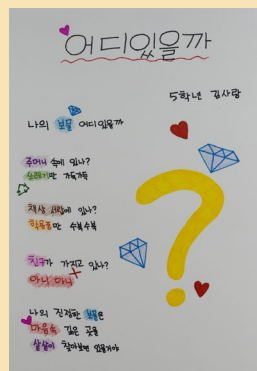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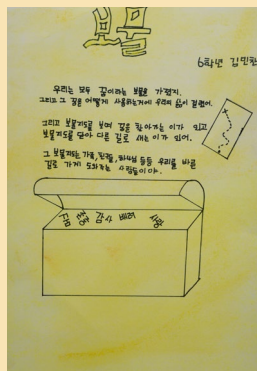
꽃  
Fl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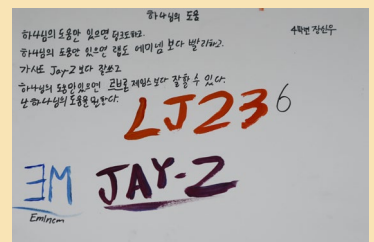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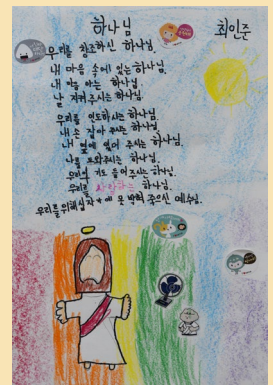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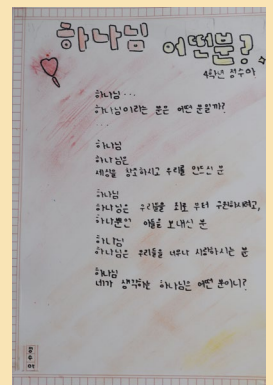
보물  
Treasure











한동 국제 학교

6학년 박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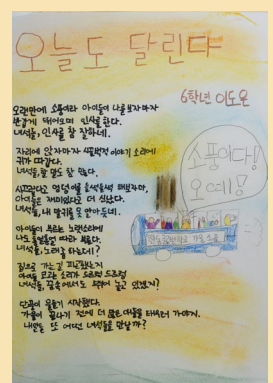
조심 조심  
하고 장문에서와 긴장했었던 때가 있었다.

뚜껑 뚜껑  
열고 재확인 하지 못했네.

성공 성공  
기 축하자가 너무 익숙해진 나는 지금

메기씨의 모든 추억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난다.

HS











## 9학년 흘치기 염색

### 9<sup>th</sup> Grade Tie-Dye

다양한 방법으로 천을 묶어 실험한 뒤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티셔츠를 흘치기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매우 좋아했고, 캠핑트립 9학년 단체 티로 입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 가정에서 세탁 시, 물이 빠질 수 있으니 첫 세탁은 꼭 단독 세탁해 주세요! 생활관 학생들의 티셔츠는 모아서 세탁할 예정입니다.

9<sup>th</sup> graders tried various ways of tie-dying by tying the cloth of a t-shirt. Students appreciated their works and said they would wear them as a uniform for 9th graders on the camping trip. Next week, when students take their shirts home, please wash them separately on the first laundry. It may lose its color when washed. The dormitory students' t-shirts will be collected and washed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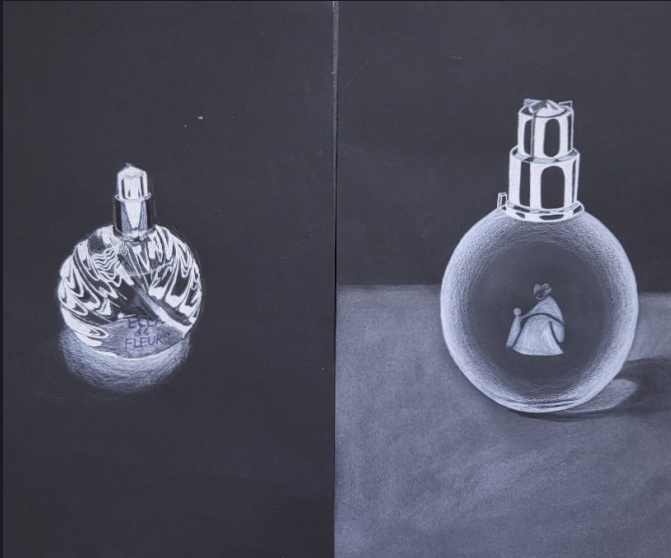


## 10학년 흑지 소묘

### 10<sup>th</sup> Grade Black Paper Drawing

다음은 10학년 학생들이 검정 종이 위에 흰 펜과 색연필을 이용해 정밀묘사한 작품입니다.

The following are what some 10<sup>th</sup> graders each drew in detail using black paper and a white pen.







HIS Connection  
Archive

2019 - 2021

<https://bit.ly/3v2RN4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ans 12:2







Renew  
Our  
Mind!